

국회 상임위 이번주 가동... 시작부터 전운

브렉시트·가습기 살균제 에너지 민영화 등 현안 산적 여야 주도권 잡기 공방 예고

20대 국회가 이번 주 상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면서 곳곳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영국 브렉시트, 북한 중거리탄도 미사일 발사, 김영란법, 전관예우 논란, 영남권 신공항,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 문제 등 굵직한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다 20대 국회 주도권을 잡기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지난주까지 상임위별 간사 선출을 마치고 전열을 정비한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회위원회 등 총 7개의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부처별 현안보고를 듣는다. 아울러 브렉시트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이 집중 질의될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도 이번주 내에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르면 27일 브렉시트로 인한 환율·통화 정책 및 실물경제 대응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며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정부의 구조조정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정무위원회도 오는 2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브렉시트와 관련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부정정탁과 금융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야권에서는



여야 3당 한자리 25일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66주년 행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중민 비상대책위 대표,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 /연합뉴스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된 정은호 게이트를,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중인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각각 버리고 있어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노위는 27일 환경부 현안보고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최근 심화된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야권의 맹공이 예상된다. 아울러 19대 국회에서 매듭지 못한 ‘가습기 청문회’ 실시 여부도 이날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9일에는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인 최저임금 시행과 관련,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의 현안보고가 예정된 27일 외교통일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 문제 등과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진다.

같은 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기간 연장 문제를 두고 여야간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산자위에서는 전기가스 등 정부의 예

지 민영화 사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국토위에서는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 결정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라며 “특히, 각종 현안들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버리고 있어 정부로서는 상당한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우리 군은 작전권 없는 약한 군대”

문재인, 정부 국방정책 비판

지난 13일 히말라야로 떠났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서 “(우리 군은) 작전권을 미군에 맡겨놓고 미군에 의존해야만 하는 약한 군대”라며 박근혜정부의 국방정책을 비판했다.

6·25 발발 제66주년을 하루 앞두고 참전용사의 평전을 읽고 감상을 남기는 행사를 취한 이 같은 현 정부의 안보정책을 참여정부와 비교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생각합니다”라는 글에서 “트레킹을 하며 ‘아름다운 영웅 김영욱’이란 책을 읽었다”며 책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 김영욱 대령이

는 부신 전공을 세웠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무공훈장을 받지 못하다가 노무현 정부가 군을 설득해 2005년 10월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일부 고위 지휘관들은 전투마다 연전연패하고도 당시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다. 군단이 궤멸했음에도 전선을 무단이탈한 지휘관도 있었다. 이로 인해 우리군 작전권이 미군에게 넘어가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미군에 의존해야만 하는 약한 군대, 방산 비리의 천국... 이것이 지금도 자주국방을 소리 높여 외치는 박근혜정부의 안보 현주소”라며 “60여년간 외쳐온 자주국방의 구호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국민의당 광주시당 본격 세확장

부위원장단 145명·고문단 109명 구성

국민의당 광주시당이 부위원장단과 고문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 세 확장에 나섰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최근 부위원장 추천·모집을 거쳐 145명 규모의 부위원장단을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중원 전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 박락진 전 광산구 부구청장, 조정래 광주시 교통경제인단체협의회 회장, 이선순 동구의회 의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박주선(동남읍) 국회의장은 지난 25일 열린 부위원장 임명식에서 “부위원장도 없이 총선을 치렀는데, 대규모

로 부위원장을 임명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국민의당이 비록 원내 의석수는 작은 정당이지만 어떤 야당보다 공고한 핵심 지지기반을 갖고 있으니 부위원장을 선두로 당 주도의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시당은 최근 상임고문 38명, 고문 71명 등 109명 규모의 고문단도 구성해 다음달 1일 위촉식을 할 예정이다. 강박원 전 광주시의회의 의장, 오주 전 광주시의회의장 등이 상임고문단에 포함됐다. 시당은 여성, 청년 등 상설위원장도 조만간 인선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

시행 3개월 앞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화두로

“내수 침체 이어질 것”...여야 개정안 논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은 3개월여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규제 항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여야 농어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 개정 논의에 나서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안영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 간담회에서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내수 침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동필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같은 당 김종태 의원도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제한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농축수산물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식·산물 상한액을 상향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일 의원위크숍에서 당 소속 농해수위원들은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품목에서 제외하는 안을 논의 과정에 포함했다. 이와 별도로 당 정책위원회는 이달 초 내

부 정책보고를 통해 현재 각각 3만원과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식·산물 상한선을 5만원과 10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도 이런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다. 농해수위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26일 “농축산물 제외를 포함해 김영란법을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정책위 차원의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농해수위원장인 더민주 김영춘 의원은 “농어촌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의원들은 (원안 시행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소관 상임위(정무위)에서의 법 개정을 위해 여론 형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새누리 전대 모바일 사전투표

8월 4~5일...“투표를 기대”

새누리당 8·9 전당대회 차기 지도부 경선에 모바일을 통한 사전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K-voting)’을 활용할 이 모바일 사전투표는 전당대회 5일 전인 8월4일부터 이틀간 실시될 예정이다.

이 방안은 지난 23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1분과(정치 담당)를 통해, 조만간 혁신비대위 전체회의에 부의 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26일 “총선 사전투표와 같은 개념으로, 투표율이 기존 전대의 30%대에서 50~60%대로 높아질 것”이라며 “대도시 지역은 투표소를 적게 뒀던 것이 때문에 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 “서울 오시라”...孫 “이제 가야죠”

김종인·손학규 광주서 조우...정치권 시선 집중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오후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 세계 웰런즈페스티벌 개막식에 나란히 참석해 조우했다.

이 자리에서 손 전 대표는 정계은퇴 후 처음으로 집거 중인 강진을 떠날 계 획임을 시사해 사실상 복귀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양측은 평소 친분이 있는 김택환 행사 조직위원장의 초청을 받아서 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손 전 대표가 최근 목포에서 국민의당 박지 원 원내대표를 만나는 등 국민의당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에서, 김 대표와의 이번 만남이 향후 정계개편이나 야권의 대권 레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김 대표가 손 전 대표에게 다가가면 서 만남을 가졌다.

손 전 대표는 김 대표에게 약속을 하면서 “건강하시나. 일도 많이 하시고 선거도 성공적으로 치르시고 당도 안정시키셨다”고 덕담을 건넸다.

김 대표는 “건강하다”고 화답하면서 “서울은 언제 올라오실 거냐. 빨리 올라 오시라고 (이 자리에서 손을) 잡는 것이다”라고 했다. 손 전 대표는 웃으면서 “이제 올라가야죠”라고 답했다.

그가 강진 만택산 자락 토담집에 집거를 시작한 후 ‘하산’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김 대표가 “약속이 있으셔서 강진에 가봐야 한다면서요?”라고 묻자, 손 전 대표는 “네, 지금 곧 가야 합니다”라고 답하면서 1분여간의 짧은 조우를 끝냈다. /최권일기자 cki@

경 축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오픈

Self MG 서양새마을금고

모집

주유 외상거래 고객

-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 후 결제 (월1회)
- 차량별 주유카드 제공 (거래투명성)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차량별 주유 확인 가능 서비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대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40
문의 | (062) 720-2872